

동부교회 새벽기도 (겔 37:7-11)

본문	겔 37:7-11
설교자	백에스더 목사님
장소	동부교회 대예배실
일시	2024.08.23 05:20
예배분류	동부교회 새벽기도

렘넌트 대회 때 주신 핵심 말씀이 영원한 기업 작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이 힘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나침반이다. 여호와와의 생기를 내 코에 불어넣으라는 말씀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호흡을 안하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은혜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배가 나침반을 보고 가야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항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침반이 없다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 인도한다고 하셨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소수이다. 작은 문제가 와도 흔들흔들 한다. 사람말을 한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절망 가운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를 찾은 것처럼 나의 그발 강가를 찾기를 축원한다.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교회를 다닌 신자들도 생명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마른 뼈다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신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보는 것, 생각, 말 달라진다. 흑암의 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산업현장 나의 현장 살릴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를 안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원망하고 불신앙한다.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축복하라는 것이다.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가 중요하다. 축도까지가 완전한 예배이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이 들려져야 치유되게 되어 있다. 말씀이 임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 능력 없이 세상 능력 갖춰도 소용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복음의 능력 아니면 영적문제 이길 수 없다.